

패권주의 우려 떨쳐내고 정권교체 확신 심어줘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대선 승리 넘어야할 과제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문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대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이란 말은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난관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가 대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조명해본다.

◇**통합의 리더십과 비전=**현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안게 됐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탄핵으로 분열된 민심을 포용하고, 그동안의 구조적 비리 등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에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국면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대선 이전에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전에 연립정부 구성과 구체적인 협치 방안 제시를 통해 혁신연대에 시동을 걸면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의 '공통분모'를 형성, '시대적 흐름'을 만들고 소수를 배려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다른 말이 아니다.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재명의

여소야대 '통합 리더십' 필요

연립정부·협치 구상 밝히고

호남 비전·정책 공약 제시

분노와 안희정의 통합을 담아 문재인인의 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 전 대표의 정치적 아키텍처인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와 취약한 리더십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문 후보에 대한 불안감과 확장성 논란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 민심의 확산=**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호남 민심은 문 후보가 대선 주자 가운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고 준비된 후보라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문 전 대표의 호남 진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지의 근거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지는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호남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너진 호남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물론 보다 강력한 적폐 청산의 청사진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광주 문화수도'와 같은 상징적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공항 이전 부지의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 조성 등 호남의 경제 지평을 뒤흔들고 과감한 정책적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이 흔들리다면 대선 막판 '문재인 대세론'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호남 말 '나비효과'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에 절대적 필요충분조건이다.

◇**TV 토론 등 기타 과제=**대선 막판 TV 토론은 문 후보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그동안의 TV 토론에서 선전했지만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보다는 잠도의 어법이 강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각 당의 후보가 참여하는 TV 토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가 극복해야 할 최후의 관문으로 꼽힌다.

비문연대 등 정치권의 공세도 과감한 혁신 연대 제안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의 구체적 정책과 과제를 밝히는 것은 물론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통해 선두 주자로서 대선 판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 전문 세력의 백의중군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왼쪽)가 3일 서울 교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 강원, 제주 선출대회를 마친 뒤 안희정, 최성, 이재명 후보의 박수를 받으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이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재인의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은 아직까지 미완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몇 가지 공약에 눈에 띈다. 우선 청와대와 검찰,국정원과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13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중소기업 임금수준을 대기업 8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21개월인 현재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조선·해운업 살리기도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경선 과정 내내 '호남 민심' 구애에 공을 들였던 문 후보는 광주정신·미래성장동력·일자리 등을 키워드로 한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해남 대흥사서 고시공부...본관 나주남평 찾아 "나도 호남 사람"

문재인과 호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호남과 각별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꿈을 키운 곳은 다른 아닌 호남이었다. 그가 호남과 첫 인연이 시작된 시기는 지난 1978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돼 복무한 특전사를 제대한 그는 별세한 부친의 49재를 지낸 다음 해 남 대흥사로 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는 문 전 대

표가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선배의 소개로 첫 인연을 맺은 곳이다. 제대 후 동원훈련 대상자였던 그는 예비군 훈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소까지 대흥사로 옮겼고 소재지인 삼산면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가 "나는 한 때 전남도민이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듬해인 1979년 이곳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사찰의 사정으로 오래 머물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시공부를 계속한 그는 1980년 서울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서 최종 합격소식을 전해들었다.

또 그의 본관은 나주 남평문씨로 지난 1월 23일 나주시 남평읍 남평 문씨 시조 등을 모시고 있는 장연서원을 방문, 종친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본관이 나주 남평읍인) 남평 문씨"라며 "이 정도면 저도 호남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광주와 호남, 또 오월정신과 늘 함께 해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광주를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 억울했다"며 호남과 인연을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정치 동반자'...대권 재도전

문재인은 누구

민주화운동 2번 구속 전력 강제징집 특전여단 군생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53년 거제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남중·고를 거쳐 경희대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에는 '반유신' 투쟁에 나선 운동권이었다.

1975년 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시위를 주도하다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강제징집'돼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복무했다. 군 복무 중 폭파과정·공중낙하·수중침투·천리행군·인명구조 훈련 등을 거뜬히 치러낸 특A급 병사로 꼽혔다.

그는 1978년 제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뒤늦게 사법고시를 준비해 이듬해 1차에 합격했다. 그러나 복학후 1979년 부



문재인(맨왼쪽) 후보의 대학시절 모습. 왼쪽 두번째는 문후보의 부인 김정숙씨.

마항쟁과 10·26, 1980년 '서울의 봄'을 거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시 문 후보는 구속됐고, 사법고시 2차 합격소식을 들은 장소는 유치장이었다.

문 후보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시위 전력 탓에 판사 임용이 좌절됐다. 그때 사시 동기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개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고, 둘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권·시국·노동 사건을 도맡아 일을 하던

중 자연스레 두 사람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돼 지난 2012년 대선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맞붙었다. 18대 대선에서 48.0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55.55%를 얻은 박 후보에게 패해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온 그는 민주당 내 대세론을 업고 다시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NT 하나 Pack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무안 출발
일본 기타큐슈
3일/4일

✈️ [3월 26일~5월 12일] 매주 3회 출발
[2박 3일 일정] 매주 금/일 출발
[3박 4일 일정] 매주 화 출발

캐주얼 JKP51_1

초특가 필살기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4일

총 상품가격 5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JPY 3000 / 선택경비 없음

- 3성급 호텔
- 매주 화, 금, 일 출발
- 티웨이 항공
- 특식 2회(무제한 고기뷔페, 돈넌)

클래식 JKP51_A

로칸 or 로칸 호텔 1박
기타큐슈/야마구치/후쿠오카
3일, 4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 선택경비 없음

- 4성급 호텔, 로칸 or 로칸 호텔 1박
- 매주 화, 금, 일 출발
- 티웨이 항공
- 특식 3회(카와라소바 정식, 돈넌, 호텔식 카이세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 062)228-1199

광주 반고호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관람일자 : ~ 2017년 5월 28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단, 전시장 사정으로 관람일자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광고 여행상품 예약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HNT 하나투어

■ [여행상품 가격표함내역] 유행용품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업자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행용품료] 유행용품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함. ■ [기타사항]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비용] 시장에서 여행업자의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충주구청) 서울시 충무로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행용품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행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4 여행 유의 * 여행 일자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